

▶ 내신 기출, 국어 천재 박영목-상편 ◀

1. 마음을 담은 언어

- (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9문제) -----1쪽
(2)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32문제)-----20쪽

2. 능동적 읽기와 주체적 해석

- (1) 등나무 운동장 이야기 (40문제)-----39쪽
(2) 허생전 (51문제)-----63쪽
(3) 초신성의 후예 (32문제)-----103쪽

3. 우리말 바로 쓰기

- (1) 올바른 발음과 표기 (64문제)-----122쪽
(2)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65문제)-----145쪽
(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란 무엇인가 (11문제)-----168쪽

4. 문학의 갈래와 구조

- (1) 향수 (50문제)-----177쪽
(2) 종탑 아래에서 (58문제)-----199쪽
(3) 두근두근 내 인생 (41문제)-----237쪽
(4) 수오재기 (43문제)-----264쪽

◆빠른 전체 정답 -----286쪽

◆해설 -----289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역 정리

㉠ ‘대화’와 ‘대화의 원리’의 개념

- ① 대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
- ② 대화의 원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태도나 규칙

순서 교대의 원리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하기
공손성의 원리	상대방을 존중하며 공손하게 말하기

㉡ ‘대화’를 잘 하기 위한 듣기·말하기 방법

①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 갖추기

‘언어 예절’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임.
→ 화자와 청자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언어 예절을 지켜 말해야 함.

■ 상황에 따른 언어 예절

사과할 때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말을 분명히 하기
	변명을 늘어놓거나 상대방을 탓하지 않기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하기
부탁할 때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 살피기
	부담 덜 느끼게 공손하게 말하기
	부탁하는 이유 설명하기
건의할 때	부탁할 때처럼 상대방의 상황 살피고 공손하게 말하기
	공적인 상황에서는 적절한 높임 표현 사용하고 정중하게 표현하기

■ 대상을 고려한 언어 예절

-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청자)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기
-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존중하고 배려하며 말하기

② 듣기·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특색이나 나이 등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식에 차이가 남.

■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

-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음.
- ↳ 상대방이 어떤 듣기·말하기 특성을 지녔는지 고려하여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함.

■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

세대별 차이	청소년 세대는 신어와 준말을, 노년 세대는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쓰는 것처럼 세대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르게 나타남.
지역별 차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는 다양한 방언이 존재함.

- ↳ 개인의 듣기·말하기 방법은 세대와 지역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
- ↳ 공적인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표준어를 사용함.

■ 듣기 ·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 ■ 언어 예절

지역 간의 언어 차이	예 강원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의 말
세대 간의 언어 차이	예 노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말
개인 성향에 따른 차이	개개인이 지닌 독특한 말하기 습관

개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
고려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 대화의 상황

■ 준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으로도 불리며, 말의 속도, 어조, 목소리의 크기 등과 같이 언어적 내용과는 분리된 음성적 요소를 말한다.
비언어적 표현
직접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얼굴 표정, 몸짓, 시선 등과 같이 언어 외적인 형태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말의 내용과 어울리는 준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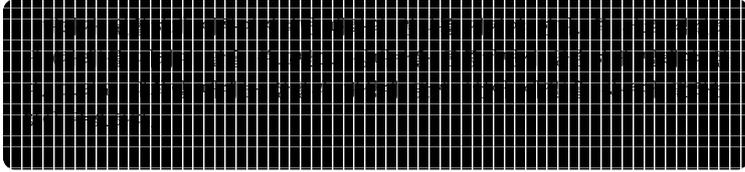
눈 자료실

공손성의 원리_ 공손성의 원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있다.

-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요령의 격률)
-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관용의 격률)
-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며 말하기(찬동의 격률)
-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기(겸양의 격률)
- 동의하며 말하기(동의를 격률)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과서 문제

1.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생각하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2. 듣기·말하기 방법이 다양한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말하기 방법이 다양한 까닭은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적 성향, 세대나 지역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듣기·말하기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3. (가)와 (나)에서 인물들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말해 보자.

■ **일요일 아침, 강유는 연극 동아리 정기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을 빌리려고 언니 시진의 방으로 들어간다.**

강유: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덩석 집으며) 언니, 오늘 이 옷 빌려줘.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시진: (당황하며) 어? 그 옷은 내가 무척 아끼는 옷이라 좀 그런데…….

강유: (실망하며) 그렇구나. 오늘 내가 입고 나가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산 내 바지 하고도 잘 어울리고.

시진: 근데 넌 왜 항상 빌려 달라는 사람이 이런 식이야? 참, 그러고 보니 저번에 옷 빌려 가서 엉망으로 해 놓고 사과도 안 했잖아.

강유: 아……. 그랬었나?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그건 미안. 이제 됐지? 그럼 이 옷 빌려줄 거지?

시진: (기분이 상하여)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말을 들으니 빌려줄 마음이 싹 사라졌어.

■ **주원이가 대표로 활동하는 연극 동아리는 달마다 연극을 단체로 관람한다. 이번에 관람할 연극을 정하려고 할 때, 주원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 말한다.**

주원: 선생님, 이제부터는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서 알아서 정해 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왜 힘들지?

주원: 서로 취존이 잘 안 되거든요. 내가 고른 거 노잼일 것 같다니, 취향이 안습이라느니, 그런 말이 오가서 기분도 안 좋구요.

선생님: (어리둥절하여) 응? 무슨 말이니?

• **가:** ‘강유’는 언니에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앞세워 말했다. 또한 부탁하는 까닭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공손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 더구나 사과하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나:** ‘주원’은 선생님께 건의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살피지 않았으며, 건의하는 까닭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세대에서 주로 쓰는 ‘취존’, ‘노잼’, ‘안습’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가)
 명찬 : 연호야, ㉠오늘 나 대신 청소 좀 해 줘.
 진호 : 음, 나 오늘 옆 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명찬 :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제제하게 굴지 말고 좀 해줘.
 연호 : 야, 너는 부탁하는 애가 뭐 그러냐?

(나)
 소희 :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재영 : 아, 맞다. 깜빡했다.
 소희 : 너 기다리느라 한 시간 동안 다들 아무 것도 못했어.
 재영 :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안.
 소희 :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동성고등학교 (서울)

1. (가)의 ㉠과 ㉡에서 지치지 않은 공손성의 원리를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 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 ②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 ③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며 말하기
- ④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기
- ⑤ 동의하며 말하기

동성고등학교 (서울)

2. (나)의 ‘소희’가 ㉢과 같이 말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① 재영이 부적절한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② 재영이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않았다.
- ③ 재영의 표정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④ 재영이 자신의 잘못임에도 상대 탓을 하였다.
- ⑤ 재영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은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나요? 대화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나요? 다음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함께 살펴보면 대화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 대화할 때에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원리이죠. 그리고 대화할 때에는 무엇보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가리킵니다.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와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보내온 사연을 함께 듣고,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다) ‘사과’와 관련한 재영이의 사연을 들어 봅시다.

제가 친구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 사과를 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사과의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소희 :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 재영 : 아, 맞다. 깜빡했다.
 소희 : 너 기다리느라 한 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했어.
 재영 :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조장인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안.
 소희 :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라) ‘부탁’과 관련한 명찬이의 사연을 들어 봅시다.

부탁할 때에도 방법이 있나요? 제가 부탁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명찬 : 연호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 좀 해 줘.

연호 : 음, 나 오늘 옆 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명찬 : 그냥 좀 바빠서 그래. 껌껌하게 굴지 말고 좀 해 줘.

연호 : 야, 너는 부탁하는 애가 뭐 그러냐?

(마) 다양한 듣기·말하기 방법과 관련한 사연을 들어 봅시다.

저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이 연세가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제도 급히 집을 나가는 길에 옆집 할아버지와 마주쳤는데요, 어디 가느냐고 물으셔서 친구 생파에 간다고 했더니 “친구가 생파를 가져다 달래?”라고 하셔서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 해야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아버지께서 서울로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저도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고향 사투리가 편한데, 전학을 가면 서울말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예요. 지금까지 쓰던 사투리를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최근에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 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 가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렇구나.”하고 말더군요.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깐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해 하는 게 이상한가요?

(바) 지금까지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대화는 말로써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듣기·말하기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어 나갈 수 있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여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김해삼방고등학교 (경남)

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라디오 방송 담화로 문어체를 사용하여 공적인 말하기의 모습이 나타난다.
- ㉡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원인을 세대별로 조사하여 듣는 이에게 알려주고 있다.
- ㉢ 가상의 사례를 통해 문제에 대한 청자의 호기심과 주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 ㉣ 질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 ㉤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김해삼방고등학교 (경남)

4. ㉠~㉤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의 재영은 변명과 상대방을 탓하는 태도로 말하기를 하고 있다.
- ㉡ ㉡의 명찬은 순서교대의 원리에 어긋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 ㉢ ㉢은 세대 간의 언어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 ㉣ ㉣은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언어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 ㉤ ㉤은 개인의 성향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

김해삼방고등학교 (경남)

5. 위의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에서 부탁하는 말하기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술하십시오.

(2) 윗글을 통해서 볼 때, 듣기·말하기를 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서술하십시오.

인동고등학교 (경북)

6. 다음 사연을 바탕으로 재영이에게 해 줄 조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연>

제가 친구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 사과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사과의 말을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소희 :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있었는데 왜 안 왔어?
 재영 : 아, 맞다. 깜빡했다.
 소희 : 너 기다리느라 한 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 했어.
 재영 :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었거든.
 (부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조장인 내가 모임 전에 한번 더 연락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안.
 소희 :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조언>

재영아, ①사과를 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아. 그리고 ②변명을 하거나 상대방을 탓하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또, ③대화 중에는 순서를 지키며 말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더불어 ④그 상황에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해. 언짢은 표정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 마지막으로 ⑤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한다면 사과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겠지?

인동고등학교 (경북)

7. 다음 사연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새로 생긴 떡볶이 가게를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배고프지 않아?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라고 했어요. 친구는 “그렇구나.”하고 말더군요. 저는 같이 떡볶이를 먹자는 뜻으로 말을 꺼낸 건데 친구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서운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서운해 하는 게 이상한가요?

- ① ‘나’는 직설적이 화법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 ② ‘친구’가 간접적·우회적 화법을 사용하여 ‘나’는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 ③ 지역마다 다른 어휘와 말투를 이해하지 못해 ‘나’와 ‘친구’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였다.
- ④ 서로의 말하기 방식을 미리 알고 배려했다면 ‘나’가 서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⑤ ‘나’의 말하기 방식이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친구’의 말하기 방식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

인동고등학교 (경북)

8. 다음 대화 상황에서 ‘은호’에게 가장 필요한 공손성의 원리를 각각 바르게 연결한 것은?

<대화 상황>

(가) 선생님 : 은호야, 너 정말 수학을 잘 하는구나.
 은호 : 당연하죠. 저 원래 수학을 잘 하거든요. 지난 시험에서도 100점을 받았어요.

(나) 은호 : 내가 어제 수업에 빠져서 그런데, 노트 좀 빌려줘.
 민석 : …….

(다) 은호 : 우석아, 너 말이 너무 빨라서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어.

(라) 은호 : 미주야, 어제 토론 대회에서 실수가 너무 잦더라고. 솔직히 별로였어. 본선에서는 더 노력하렴.

(마) 수지 : 은호야, 토론 대회 장면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떨까? 토론 대회의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은호 : 수지야, 말도 안 돼. 토론 대회 장면을 공개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공손성의 원리>

- ㉠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 ㉡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 ㉢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기
- ㉣ 동의하며 말하기
- ㉤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며 말하기

	(가)	(나)	(다)	(라)	(마)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보낸 사연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중략>

대화할 때에는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지키며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혼자 계속해서 말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화의 원리이죠. 그리고 대화할 때에는 무엇보다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어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을 가리킵니다. 언어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려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의 관계와 대화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하는 내용이 올바르더라도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첫째,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듣기·말하기 방법은 세대나 지역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선 청소년 세대는 신어, 준말 등을 자주 쓰고, 노년 세대는 예스러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 세대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서로의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말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른 말하기 방법의 차이는 지역 방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 방언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므로, 지역 방언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다만 공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개인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요.

듣기·말하기 방법은 사회·문화적 특성 외에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특성일 뿐,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화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므로 상대방의 듣기·말하기 방법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금정고등학교 (부산)

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윗글은 대화와 표준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윗글은 TV 프로그램 방송 담화를 옮긴 것이다.
- ③ 윗글은 문어체로 격식을 갖추어 정중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④ 윗글은 개인적 성향에 따른 말하기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진행자의 질문을 통해 얻은 청취자의 답변을 활용하여 글이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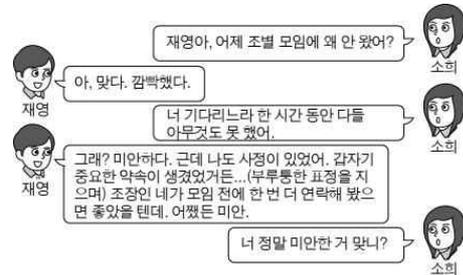
금정고등학교 (부산)

10. 윗글을 바탕으로 알아본 올바른 대화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면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 공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어를 쓰며 말해야 한다.
- ③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나의 대화 목적을 변경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④ 대화할 때에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그에 적절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세대나 지역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이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말해야 한다.

금정고등학교 (부산)

11. 대화의 언어예절에 따라 아래 재영이의 대화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 ②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과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게 하고 있다.

1-(1)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① ③

▶ ① 청소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말하기에 해당 ㉠ 꾀꾀하다며 상대를 비방하고 있는 말하기

2.①

▶ 준언어적 표현은 없음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준(반)언어 vs 비언어 (★)

- ㄱ. 언어적 표현: 문자 혹은 음성 언어
- ㄴ. 준(반)언어적 표현: 억양, 고저, 어조, 속도 등
- ㄷ. 비언어적 표현: 손짓, 몸짓, 표정, 옷차림 등

3.④

①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의 높임말을 사용하여 공적인 말하기의 모습을 드러냄 ②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원인이 세대별로 조사된 것은 없음 ③ 청중의 사연은 있어도 가상의 사례는 없음 ⑤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지는 않음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구어체 vs 문어체(문장체) (★)

- ㄱ. 구어체: 입으로 하는 말로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말투로 줄임말이나 개인적인 말투 등은 모두 구어체에 해당한다.(극 문학은 지문 빼고 모두 구어체라 볼 수 있음)
- ㄴ. 문어체(문장체): 글로 하는 말로 구어체를 좀 더 객관화 혹은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춘 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공문서나 설명문은 반드시 문어체로 써야함)

- *뭘 소리야? 난 이거랑 저거를 가져간다! →(구어체)
- *무슨 소리야? 난 이것과 저것을 가져간다! →(문어체)

4.②

▶ 명찬은 부탁을 완곡하게 청하고 있지 않아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다.

6.④

▶ 부루퉁한 표정을 지은 재영은 한 번 더 연락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비언어적 표현은 적절히 사용한 셈임

7.④

▶ 떡볶이를 같이 먹고 싶다는 나의 간접적인 말하기 방식을 친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함

8.②

▶ (가):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에 ㉠이 적절, (나): 빌려주기 싫다는 침묵의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 적절. (다): 제대로 듣지 못한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의 말이 너무 빠르다고 했기에 ㉢가 적절. (라): 상대를 비방하고 있으므로 ㉣가 적절. (마): 상대의 말에 전

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가 적절

11.②

▶ 준언어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 부루퉁한 표정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함

12.②

- ① 동의하며 말하기는 일치점을 높이는 말하기임
- ③ 겸손하게 말하기는 청자의 이익을 높이는 말하기임
- ④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는 화자의 부담을 높이는 말하기임
- ⑤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칭찬하며 말하기는 청자의 칭찬을 극대화하는 말하기임

13.④

- ① 요령의 격률을 어김 ② 겸양의 격률을 지킴
- ⑤ 찬동의 격률을 어김

14.①

▶ 선생님은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함

16.①

- ② ㉠은 (나)에 해당 ③ ㉡은 (다)에 해당
- ④ ㉢은 (다)에 해당 ⑤ ㉣은 (나)에 해당

17.③

▶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공적인 대화에서는 삼가해야함.

19.①

▶ 상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거나 함부로 순서에 끼어들기에 ①의 조언이 가장 적절함.

20.②

ㄴ: 명찬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요령의 격률'을 어김. ㄷ: 명찬이가 약속이 생긴 것을 거짓이라고 불 근거는 없으므로 질의 격률'에 어긋난 것은 아님. ㄹ: 명찬이가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건 아니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어긴 건 아님.

21.①

▶ 통계자료는 친구 몇 명보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신뢰성이 높음.

▶ **어머, 이건 외워야 해!** ◀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 (★)

- ㄱ.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상식적)
- ㄷ.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ㄹ.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ㅂ.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